

### 이제 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4>



#### 경전 많이 알아야 할까

불경을 읽다보면 많은 경전들이 스스로의 위대성을 찬양하고 중생들이 항상 수지 독송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경전 전부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중에 만약 한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니거나 외우게 되면 무량무변의 공덕을 성취하게 되고 마침내는 부처님의 위 없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설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에쿠다나 라는 이름을 가진 한 수행자가 있었 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이름으



로 불리게 된 까닭은 다른 수행 자들과는 달리 부처님이 설 하 신 많은 말씀 중에 다른 것은 모 른 채 오직 하나(에쿠)의 계송다 내만을 읊을 줄 알았기 때문이 었습니다. 그런데 에쿠다나는 비록 하나의 계송밖에 아는 것이 없었으나 그 계송의 의미 를 잘 숙지하고 있었고 그 것을 읊을 때는 큰 신심과 함께 할 수 없는 기쁨에 젖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에쿠다나가 또 다시 계송을 읊기 위해서 한적한 숲 속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항상 그대 왔듯 에쿠다나는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 계송의 뜻을 읊미 하면서 큰 소리를 읊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요하리만 했던 숲 속이 갑자기 환호 소리와 함께 박수 소리가 가득 차는 것이 었습니다. 이에 신이 난 에쿠다 나만 계속해서 계송을 읊었고 그 때 때마다 숲 속은 환대로 떠 해주었습니다. 에쿠다나는 생각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읊는 하나 의 계송 소리만으로도 온 숲

이 환호한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남들에게 가르치는 강사비구 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일이 일 어날 것이다.

곧 두 명의 강사 비구를 찾아 숲 속의 일을 말 하고는 데려다 가 경을 읊게 하였습니다. 두 강 사비구는 그들이 기억 하고 있 는 대로 유창하게 경전을 암송 하였습니 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숲 속은 아무 일이 없었 다는 듯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 고 다시 에쿠다나가 다시 계송 을 읊자 전혀럼 환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에 두 강사 비구 는 당황하여 숲 속으로부터 바 빼 빠져나와 이상한 일이라 여

####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함이 중요

기고 부처님께 그 사실을 고하 였습니다. 부처님은 두 강사 비 구의 말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훈계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무 릫 여래의 가르침을 많이 기억 한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에쿠다나 비구 처 럼 하나의 계송이라도 잘 이해 하고 신심으로 그 가르침을 실 천하면 모든 신들도 기뻐 할 뿐 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알 게 되느니라.

불자들 중에는 부처님 앞에서 경전을 읽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고도 않은 채 일로 글자만 외우는 경우가 많습 니다. 뜻도 모르고 목탁소리를 읊성 소리에만 도취되어 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한낱 미신적인 주문 밖에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는 목적은 부처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무지와 미망 을 타파하고 지혜의 안목을 열어 법의 실상을 바로 보기 위해 서입니다. 여러 경을 많이 읽으 려고 하기 이전에 말씀 한마디 라도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유마선원장>

# “나-너 구분않는 깨달은 부처로 살자”

## 대호스님에게 듣는 생활인의 참선법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은 깨달아야겠다는 생각조차 버리 라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나누는 마음(분별심)입니까?”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든 모두 분별심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 ‘이미 일체중생이 깨달아 있어서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한 말씀이 결코 선문답이 아닙니다. 부처와 중생을 나누는 순간 이미 분별하는 마음에 떨어진 것이기에 일상 속에서 나와 남, 생각의 대상을 분리하지 않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2월 24일 조계사 극락전. 조계창원회(회장 정우식)의 수행 법 대강좌 결제 중 ‘생활인의 참선법’을 주제로 진행된 대호 스님(제주 원명선원 회주)의 참선 법회는 일방적인 설법만이 아닌 문답형식으로 진행됐다.

스님은 ‘간단하게 일념으로 사는 참선이 불교다’, ‘참선은 아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다’, ‘마음 다스리는 법’ 등 선 에 대한 기본원리를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그때그때 수련 생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의문점은 바로 풀어주었다.

그러나 토론 형식의 이 설법에는 ‘생활선’이라는 주제에 래 하나의 일관된 법문의 요지가 녹아 있었다. 그것은 ‘사람 은 본래 깨달아 있는 존재이기에 자성불(自性佛)의 법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다.

“누구나 ‘본래 깨달아 있다(본래각)’는 인간의 정체 를 드러 낸 ‘이 한 마디는, 이 말을 뱉 나 머 지 팔만 대장경의 모든 법 문보다 더 중요한 만큼 그 뜻이 대단히 큼니다. 이 한 마디를 일러주기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49년 설법이 시작된 거 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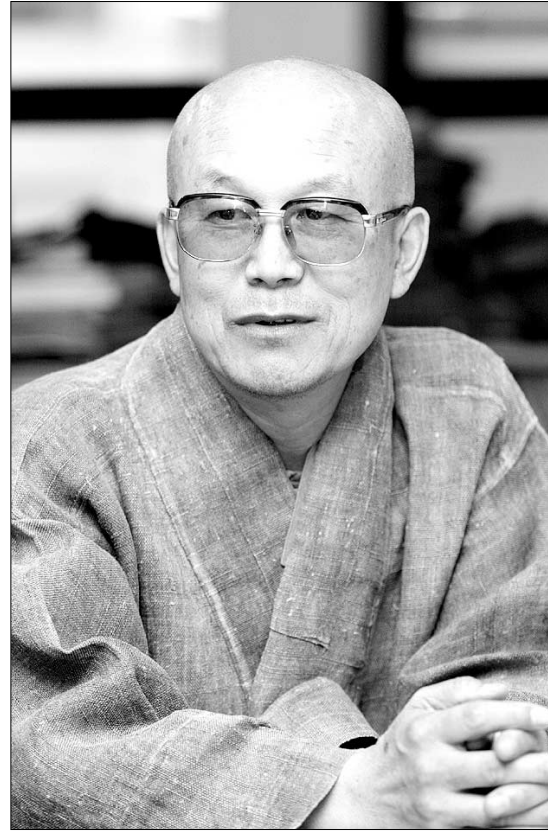
‘본래 깨달아 있다’는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조사선의 화 두 참구는 이미 깨달아 있어서 부족할 것이 없어, 더 구할 것 이 없는 원만 구족한 존재를 말한다.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두



29년째 이어지고 있는 원명선원의 '삼매체험 선수련회'.

려울 것이 없고, 굴할 것 없이 당당하고, 미혹함이 없는 지혜 로 자신과 만물을 보기에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모든 번뇌의 굴레에서 초연해질 수 있는 게 참선 공부다.

“‘본래 깨달아 있다’는 사실에 대해 믿기를 두려워하는 당 신의 제자나 후대의 인류를 위해 부처님은 많은 비유와 예를 들어가며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무지를 씻어주고자 설법 하셨습니다. ‘본래 깨달아 있다’는 자신의 존재를 모른다면, 내면을 등지고 밖을 향해 자신 이외의 불일이나 명예, 권력, 감각에서 행복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를 모른 채 수행한다 면, 깨달음을 얻기는커녕 점점 더 고통과 암흑의 수렁으로 빠 저드는 무지의 행군에 불과해요.”



대호 스님은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고 깨달은 부처로 사는 것 이 참선”이라고 말한다.

## 분별심 버려야 나 바로 보여 수행은 마음 더럽히지 않는 것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깨달음의 세계 안에 있으며, 이미 깨 달아 있는데도 무명으로 인해 갈등하고 분별하는 것은 왜일 까.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하는 때문이다. 사 물들 바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생각하여 헤아림) 분별에 있으며, 분별하는 까닭은 자기 자신을 비뚤어지게 보는 데 핵 심이 있다. 그래서 스님은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사랑 분별심을 버리고 현실에 처한 자신을 올바르게 직시해야만 한 다”고 강조한다. 무상한 현실의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냉정

하게만 볼 수 있다면 본래 깨달음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발 동기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따라서 조사선의 수행은 중생을 부처로 바꾸는 본질의 변화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 바탕을 바로 보지 못하는 착각에서 깨어나는 수행이라 한다.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의 삶과 활동은 어떠해야 할까. 스님 은 깨달음은 누구나 일상의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조 급도 왜곡하거나 꾸민 것이 아닌, 단순하고 평범한 사실이라 고 말한다. 졸리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먹는 평상심을 진실되 게 실천하는 것이다. 스님의 마음 다스리는 법은 평상심을 실 천하는 한 방법. “원하는 즐거움이 다가오더라도 좋아서 당 기지 마세요. 원치 않는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싫어서 떠밀지 마세요. 즐거움과 고통을 들여다 보고 들여다 보아, 두 가지 마음의 뿌리가 뻗어서 사라지더라도 또다시 살펴보세요. 좋 고 싫은 마음이 끊어질 무심이 될 때까지.”

“자성불의 법력을 쓰고 살라”는 가르침 역시 스님이 강조 하는 생활선의 주요 내용이다. “우리는 자성불로 산다. 자 성불의 법력으로 사는 사람은 장애가 없습니다. 법력은 깨달 음의 삶이자 자신을 찾은 삶입니다.”

이와 같은 대호 스님의 생활속 참선 공부는 오직 의정으로 없고 높고 서고 다니며 화두를 들어 삼라만상의 근원에 도달 하는 매우 단순하고 간결한 일념의 생활화이다.

“화두의 의심은 의심하는 생각과 의심되는 화두로 분리되 지 않고, 오직 의심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이 의정에는 ‘나’ 라는 생각을 벗어났으니 ‘나’에서 오는 ‘너’라는 대상과 ‘나’에 대한 일체의 대상을 벗어나 주체의 대상을 초월한 의 심입니다. 유(있음) 무(없음)의 양면(유나 무의 양쪽에 치우침) 을 벗어난 중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무한 일념입니다.”

대호 스님은 “참선은 상대적인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자타 의 분리에서 오는 상호 대립, 자신과 대상(나와 너, 나와 집단, 나와 일, 나와 이 세상)을 나누고, 나뉘는 데서 오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대자유 해탈”이라며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는 깨 달은 부처로 살아가자”며 법문을 갈무리 했다.

1976년부터 29년간 매년 여름 및 겨울 ‘삼매체험 선수련 회’를 열고 있는 대호 스님. 스님은 일방적인 교육 보다는 문 답식 법문으로 모든 현상에 대한 이해와 발심을 촉발시키는 수련회를 운영해 그동안 1만5천여명의 수련생을 배출했다.

서용, 서암 스님 문하에서 공부한 대호 스님은 “수행이란 인위적인 뒤움이 아니라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것일 뿐”이라 며 “참선자는 진취적이고도 간결한 발심으로 나아가야 한 다”고 당부한다. 원명선원 (064)755-3322

김재경 기자 jkjm@buddhapia.com



무각 스님은 “마음하나 잘 쓰는 것이 참선의 목적이요 본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한 순간에 바뀌는 것”이라며 “선(禪)의 마음을 갖추고 순간순간 닦치는 모든 일을 대하면 건강하고 당당한 참사람의 삶을 살아가자”고 말했다.

공생선원은 매주 화요일(오전 10시30분, 오후 7시30분) 금강경 강의, 매주 금요일(오전 10시30분, 오후 7시30분) 참선반도 개설하고 있다. (02)900-2448

김재경 기자

## 공생선원 참선 입문 강좌 개설 3일부터 매주 수요일 1년과정

가족 참선법으로 유명한 서울 공생선원(선원장 무각·사진)은 3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30분) ‘참선 입문’ 강좌를 개설한다.

생활 속 참선에 대해 1년동안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이 강좌는 고경관법을 놓아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여 밝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무리 할런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절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이 옵니다.**

**이것이 첫번이다 명당옥(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결된인 처방법 전회주시면 안내 재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진용 명당옥(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 있습니다.

**황정어리 복정어리 황금어리 황기마인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 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다려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꿀병이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여 속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용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경계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원종대학교 보우국사 열만사지 소장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자수 대진 합장

**지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 소재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 대 상: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주하고자 하는 모든 분
- ◆ 정 원: 24명~30명 내외
- ◆ 시설개요: 본 건물 → 방규포(약 7평) 24실(각실 인터넷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 입방비부담: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 연 락 처: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 ▶ 남한산성 자리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남다른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 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음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 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 구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